

■ 특특뉴스

기업 60.9% “신입 1~3년 내 퇴사”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사원이 1~3년 내 퇴사하는 ‘조기 퇴사’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 4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입사원 조기 퇴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퇴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3년이 6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개월~1년 미만(32.9%), 3개월 이하(6.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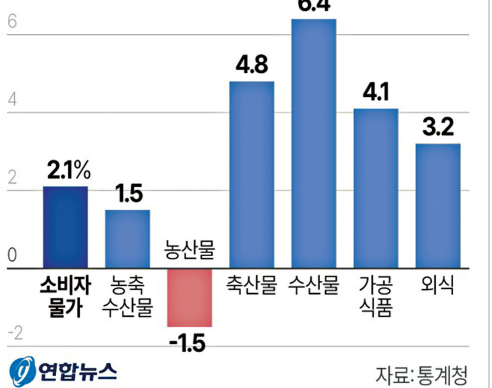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이유로는 ‘직무 적합성 불일치’가 58.9%로 1위였다. 이 밖에도 낮은 연봉(42.5%), 맞지 않는 사내 문화(26.6%), 상사 및 동료 인간관계(23.4%), 워라밸 부족(17.1%), 기타(7.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조기 퇴사가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80.5%에 달했다.

■ 그래픽 경제

주요 식품물가증가률

2025년 4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축·수산물 오르고 농산물 하락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축산물 물가 지수는 4.8%, 수산물 물가지수는 6.4% 작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반면 농산물 물가 지수는 1.5% 하락했다.

가공식품 물가 지수는 4.1% 상승했다. 코코아와 커피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오른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공공요금 등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외식 물가 지수는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년 동기보다 3.2% 상승했다.

호남통계청, 지역경제동향

서비스 생산·건설·수출 ‘악화’

순이동 광주 4945·전남 247명

1분기 광주·전남 서비스업 생산, 건설수주, 수출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30대 젊은세대가 3개월 동안 6,200명 넘게 지역을 떠나는 등 불경기로 인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13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광주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1.8(기준 2020년=100)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7%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28.2% 줄었는데 불경기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전남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6.6으로 1.6% 낮아졌다. 숙박·음식점(-10.3%)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수주액은 광주와 전남 각각 1,386억 원·5,528억 원으로 88.9%·63.9% 줄었다. 건축·토목·공공·민간 등 공종·발주자별 모든 수주가

곤두박질 친 수준이다.

같은기간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광주 수출은 전년비 10.8% 감소한 38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프로세스와 컨트롤러(-15.5%), 주력산업인 승용차(-7.1%), 축전기와 전지(-69.1%) 등 부진 영향이 컸다.

전남에서도 경유(-39.9%), 기타 석유제품(-29.3%),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28.0%) 등 전년보다 19.3% 감소한 100억 7,0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특히 0세~39세에서만 6,219명이 떠나는 등 젊은층의 지역 이탈이 심각했다.

이 기간 광주·전남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총 5,192명이 순이출됐다.

광주 순이동자 4,945명 중 69%가 0세~39세였다.

구체적으로 △20대(-1,795명)가 가장 많았고 △30대(-894명) △50대(-664명) △10대(-617명) △40대(-487명) △60대(-387명) △0~9세(-122명) 등이다. 70세 이상에서만 21명 늘었다.

지자체별로 남구에서만 984명 유입됐고 △광산구(-2,062) △북구(-1,807명) △서구(-1,458명) △동구(-602명) 등 모두 줄었다.

같은기간 전남은 10대에서만 669명이 떠나

2025년 1/4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

(자료: 호남지방통계청)



전체 감소 인구(-247명)을 훌쩍 넘어섰다. 20대에서는 2,072명, 0~9세도 50명 떠났다. 고령화로 70세 이상에서도 -124명을 나타냈다.

이외 연령대에서는 △30대(437명) △40대(507명) △50대(1,015명) △60대(709명) 모두 늘었다.

시·군 별로 목포 인구가 1,858명 떠나 가장 감소량이 컸다. 이어 △여수(-1,177명) △순천(-543명) △영암(-314명) △완도(-116명)

△담양(-62명) △진도(-26명) △강진(-17명) △해남(-3명) 등 순으로 유출 인구가 많았다.

반면 지난해 2분기부터 인구가 크게 유입된 무안군은 올해 1분기에 848명 증가했다. △신안(688명) △나주(549명) △장성(540명) △영광(492명) 광양(302명) △고흥(146명) △보성(118명) △장흥(38명)에서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현 기자

광주경총, 노동현안 기업대응 맞춤형 교육 호응

근로감독·통상임금 등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13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 54명을 대상으로 2025년 근로감독 및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노사간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2025년 근로감독 방향 및 최근 통상임금 이슈를 전달하고 회원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을 하기 위해 실시했다. 강사로는 류관훈 광주고용청 노사상생지원과장과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나섰다.

1강에서는 류관훈 과장이 ‘2025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추진방향’을 주제로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방향과 주요 점검사항 안내 등을 강의했다.

2강에서는 이정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기상여금·성과급·기타 제수당 등 보상규정 정비, 통상임금 입법화 동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 순으로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장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있어 개별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3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 54명을 대상으로 2025년 근로감독 및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경총 제공

점”이라며 “통상임금 확대 등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감독 기준과 실제 수검사례 및 관리방안을

공유해 안전하고 불안 요인이 없는 사업장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이연수 기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을 드립니다! 광주 남구 고향사랑기부제 를 소개합니다!

기부대상

주소지가 남구가 아닌 국민 누구나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기부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위기브, 액티부키, 금융권 (국민,기업,신한,하나)

오프라인

NH농협은행 창구 대면접수

기부혜택

답례품 - 기부액의 30%지역특산품 등 제공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공제

기부금 사용

지정기부

- 100년의 편지, 한국형 웰투서점 시간우체국
- 장애인 예술가들의 희망 선물, 함께 올려요
- 대한민국에게만 유예된 축복을 여는 기차
- 모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한발짝, 보장구 클린서비스

일반기부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홀로서기 지원금 지원
- 장애인 수영클럽 운영
-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지원



문의처 : 남구청 주민자치과 고향사랑팀 ☎ 062-607-2880 ~2882